조계종복지재단, 불교복지 기여자 38명 선정

조계종총무원장표창 보리 스님
국회의장 공로상에 동준 스님
복지부 장관상에 현법 스님 등
12월 6일 역사문화관서 시상식










① 총무원장 표창 보리 스님
② 총무원장 특별상 영산반야회
③ 대표이사 표창 함상원
④ 국회의장 표창 동준 스님
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현법 스님
⑥ 문체부장관 표창 김건태
⑦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종로구 가족센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 38명이 '2022년 불교사회복지 유공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11월 8일 "불교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단체, 사찰 등으로부터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후보를 추천받아 정부부처 추천 등을 통해 시설운영과 후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공자 38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표창에는 침체된 지역 불교 구심점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기여한 순천포교당 대승사 주지 보리 스님과 2005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취약계층 김장김치를 지원하며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공헌한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총 14명의 개인 및 단체가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대표이사 표창에는 복지현장에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기술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광호 관장,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서울노인영화제를 국제영화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며 주체적 노인상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문화발전에 기여한 서울노인복지센터 함상원 부장, 1983년부터 구치소 재소자 교화활동을 시작으로 불교계 복지단체와 협력해 독거어르신 · 난치병 환자 ·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봉사와 후원을 꾸준히 이어온 사단법인 미소원 등 총 15명의 개인 및 단체가 선정됐다.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을 건립, 장애인 자립영역 확대 및 인재를 육성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활동으로 장애인 인권안전망을 강화한 승가원 법인사무국 동준 스님에게 국회의장 공로장이, 존폐 위기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 용화사 주지 현법 스님 외 2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수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복지관 관장으로서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며 장애인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뛰어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및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공헌한 농성빛여울채종합복지관 김건태 관장과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의 선도적 역할에 이바지한 강남장애인복지관 정성운 사무국장에게 수여된다.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은 적극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매년 외부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7년간 사회복지관 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도록 일조한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차진영 과장 외 2명에게 돌아갔다.

한편 '제24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자비나눔 유공자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2023년 청년불자 이끌 수장은 누구?

대불련 중앙회장에 유정현 씨 출마
대불청 중앙회장 선출은 연장 공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1년차 중앙회장 선거에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부 3학년 유정현(여의행) 씨가 단독 출마했다. 〈사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최근 61년차 중앙회장에 유정현 씨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대불련 선관위는 10월 13일 선거공고에 이어 11월 4일까지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11월 5일 후보 자격심사를 통해 유정현 씨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단독 후보자로 결정했다.

유정현 후보는 2019년 동국대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부에 입학했다. 서울 영화사 어린이법회 간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며, 유튜브 '절로TV' 출연 및 활동을 했다.

2020년 동국대 불교동아리에 입회 후 소모임 '불교유적답사회' 모임장, 총대위원회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KBUF 청년 대학생 불자 조직 리더 워크숍에도 참가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 청년대학생전법단 소속으로 역사문화순례에도 참가했다.

2017년에는 파라미타 우수회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한불교진흥원 1 · 2기 대원청년 불자상을 수상했고, 2021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두근두근 템플스테이, 우리 지역 여행코스 만들기' 장려상도 수상했다.

유정현 후보는 "대학생들에게 막연한 불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불교가 젊은 문화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젊은 불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불련 61년차 회장 선거는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는 11월 27일 열리는 제76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제32대 중앙회장을 선출키로 하고, 입후보 등록 사항을 연장공고했다.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제32대 중앙회장 선출을 위해 당초 예정된 11월 1일까지의 입후보 기간을 11월 13일까지 연장했다"고 전했다.

대불청 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과 함께 후보등록금 200만원과, 선관위 보시금 3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입후보자 선거운동은 11월 27일 제76차 임시총회 전일 24시까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제70회 겨울지도자강습

11월 26일 단양 미륵대흥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11월 26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지금 여기 명상 ON'을 주제로 제70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회는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이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마음근력을 강화하고, 강습회에 참가한 지도자들 간의 네크워크를 통한 사찰법회 플랫폼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레크리에이션협회장 스님의 '인성교육, 화엄놀이 카드 활용법'을 비롯해 자인공방 대표 자인 스님의 '佛 멍' 강좌, 진성철 깨비이벤트 대표의 '마음 愛 몸짓' 율동 프로그램, 다르마명상심리상담센터 강사 수인 스님의 '싱잉볼 체험', 대흥사 자연명상, 이수민 신나는공예세상 대표의 '교리가 있는 체험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 30명 모집이다. **노덕현 기자**

"한결같은 후원 감사합니다"

조계종복지재단, 11월 10일
장기 후원자 20명에 감사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수년 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했다.〈사진〉

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10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고액후원자 감사장 전달식'을 진행했다. 감사장을 받은 고액후원자는 총 20명으로, 이날 전달식에는 3명의 후원자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은 최근 3년 이상 정기후원자 중 누적금액이 가장 많은 후원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후원자 20명의 누적 후원금은 약 3억 6000만 원이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류미아 후원자는 14년 10개월째 후원을 이어왔다. 류미아 후원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식구라는 생각으로 큰 부담이 가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보시한 것 뿐"이라면서 "어깨가 더 무거워진 만큼 좀 더 좋은 일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년 4개월을 후원한 최아현 후원자도 "후원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년이 흘렀다니 스스로도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성희 후원자는 "조계종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믿음을 갖고 후원하는 만큼, 의미있는 일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웃으며 말했다.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개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꾸준히 큰 금액을 후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금액의 크고 작음을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재단의 큰 기둥이 돼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은 자비나눔 무료급식,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후원 등 다양한 영역의 복지사업을 통해 부처님 자비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면서 "계속 기억해주고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무처장 해공 스님도 "꾸준히 한 기관에 후원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후원자들 보시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28회 불교인권상에 이하라 히로미츠

선감학원 사건 증언활동 등
진상규명 활동 적극 이어와



불교인권위원회가 '제28회 불교인권상'에 '선감학원'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 활동가인 이하라 히로미츠를 선정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설립 · 운영된 소년강제노동수용 시설이다. 해방 이후 경기도로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운영됐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국가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140명 이상이 암살됐다는 증언에 근거, 시범 발굴 5일 만에 5구의 유해를 찾아냈다.

제28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하라 히로미츠(井原 宏光)는 1943년, 소학교 2학년 때부터 선감학원에서 학대당하며 죽어가는 조선소년들을 목격했다. 자신이 목격한 선감학원에서의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자전적 소설「아! 선감도」를 1991년 발간, 일본전역에서 강연을 통한 증언활동을 해왔다.

1996년 억울하게 죽어간 선감학원 수용생을 위한 위령제를 주민들과 함께 최초로 선감묘지에서 지냈다. 2014년 시민, 작가들의 물자기부, 재능기부를 통하여 선감학원 터에 위령비를 세웠고 이어 한국당국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불교인권상 시상식은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32주년인 11월 20일에 열린다.

임은호 기자

